

전남 15개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전국 최다 선정...고용주당 2명 추가 인센티브 혜택 시·군 협약 공유 고용 다변화 인력 안정 확보 기대

전남도는 10일 "농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시·군에 전국 최다인 15곳이 선정돼 인센티브 배정 인원을 추가 확보하고 고용방식 다변화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3년간 계절근로자 입

국 인원 대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전남에선 15개 시·군이 선정돼 전국(101개)의 15%를 차지했다.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지역은 고용주당 2명씩 추가 배정 인원이 주어진다. 계절근로자는 본국의 농업 종사 입증 서류가 면제돼 서류 준비 등의 시간을

아낄 수 있어 빠른 입국이 가능하다. 올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15개 시·군의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는 총 1천 153명으로 고용주당 2명씩 추가 배정받을 경우 농번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전남지역 배정 인원은 총 8천 124명(기존 배정 5천 818명·인센티브 2천 306명)이다. 정부는 또 농번기 일손 확충을 위해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사업을 진행하

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방식 이다변화된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는 ▲송출을 희망하는 해외 국가나 지자체를 시·군에서 직접 업무협약을 해 고용하는 방식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기존 도입 방식은 계절근로자 송출 국가의 자체 사정이 발생하면 계절근로자 도입이 적기에 되지 않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1개 국가와만 업무협약을 해 해당 국가의 인력 송출이 원활하

지 않으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동일 광역권 내 지자체 간 계절 근로 업무협약 체결 사항 공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 시·군별로 체결이 완료된 8개 국가, 85건의 계절 근로 업무협약을 도내 22개 시·군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 지자체별 해외 인력 송출 국가와 대상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는 방식도 시범 도입

됐다.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 대학이 대상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5곳이 포함됐다. 강하춘 농업정책과장은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인력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 권의하겠다"며 "계절근로자 확대에 맞춰 시·군과 함께 무단 이탈 최소화 등 관리 대책 강화도 적극 추진해 농업인인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토양 오염 실태조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오는 13일부터 산업단지·공장·교통 관련 시설·지하수 오염 지역 등 토양 오염 우려 지역 106곳을 대상으로 '2024년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중금속·휘발성 유기물질 등 총 23개 항목이며,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정화 조치 명령을 내린다. 지난해 토양 오염 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 100곳 가운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4곳에서 아연·납·페놀류가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해 토양 정밀 조사 등 복원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시 토양 보전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115곳으로 조사 지점을 늘려갈 예정이다. /박선강기자



도심 불법 광고물 수거 지난 8일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새봄을 맞아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각종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북구는 3월 한달간 불법현수막을 집중 수거한다. <광주북구 제공>

전남개발공사,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감사

중대재해 유발 요인 집중 점검

전남개발공사는 10일 "봄철을 맞아 지반 융해 등으로 취약해진 여수 죽림1지구, 남악 오피스 택지개발지구 등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최근 4일간 해빙기 안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감사는 전남개발공사가 2022년 신규 도입한 안전 점검 기법으로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시정 조치에 대한 추적관찰을 실시, 동일·유사 위험요인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전남개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건설안전 특화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시설물 균열·변형 ▲흙막이 시설 상태 ▲굴착 사면 변형 ▲지반 침하 ▲가설구조물 상태

등 해빙기 중대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은 지속 시정 조치 중이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향후 유사한 위험요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백형수 안전감사실장은 "봄이 되면 서 취약한 지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빈틈없는 점검과 사전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안전감사제도 도입으로 산업재해 발생률을 전년 대비 6.0% 저감시키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무재해 사업장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무등산평촌마을 '생태관광명소'로 가꾼다

시, 소쇄원·환벽당 등 관광자원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가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생태관광명소'로 육성한다. 소쇄원, 환벽당, 분청사기전사관 등 마을 주변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도시민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에 총사업비 8천 400만원

을 투입,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무등산 동북쪽 자락에 위치한 무등산평촌명품마을은 반딧불이와 멸종위기종 수달 등이 서식하는 등 생태환경이 우수해 2015년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과 풍암정을 잇는 6.5km 규모의 순환형 누리길을 조성, 지난해 방문객이

1만 5천여명에 달하는 등 생태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거주민이 협의회를 구축해 자원 조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도자기 공방 체험, 감자·옥수수 등 농산물 수확 체험, 곤충 탐사 등 도시민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마을 주변 소쇄원, 환벽당, 분청사기전사관 등 다양한 문화유적시설과

연계 관광 추진을 진행해 생태관광 만족도를 높인다. 마을이카이빙, 동식물 조사 등을 통해 생태관광자원조사와 자연보전 활동을 펼치고 소공원관리, 정화활동 등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거주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인력 양성, 생태관광자원 발굴, 홍보방안 등 '생태관광명소'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풍암정 등 무등산 자락의 멋진 경관과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숨겨진 명소"라며 "많은 시민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광주시는 10일 "지난해 4월 1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실행한 동행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우수 사례 모음집 '우리가 좀 바꿨습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9개 동행복지센터 전체가 참여해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실천 사례와 지난해 우수 사례 공모전 수상작 '이대로 죽을 것 같 다에서 이제 좀 살 것 같더라' 등 100여 개 사례가 담겼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그 뜨거운 실천

일기에는 ▲퇴원후 목욕 한 번을 못했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실행한 동행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우수 사례 모음집 '우리가 좀 바꿨습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9개 동행복지센터 전체가 참여해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실천 사례와 지난해 우수 사례 공모전 수상작 '이대로 죽을 것 같 다에서 이제 좀 살 것 같더라' 등 100여 개 사례가 담겼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그 뜨거운 실천 일기에는 ▲퇴원후 목욕 한 번을 못했던 데 너무 좋네요 ▲아무도 와주지 않았는데 너무 고마워요 ▲병원을 같이 가주는 서비스도 있었어요? ▲고맙소, 집도 치워주고 말장대도 해주니 ▲가족들 모두 간병으로 너무 힘들어요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담당했던 동행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실제 사례가 수록됐다. 또 광주다움 통합돌봄 소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을 소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걸어온 길 등으로 구성됐다. /박선강기자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내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달여 진합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체험분 5포**

4개월분 139,000원

드셔보신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3低

4高

지방산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S 호성유통 (유통전문업체)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